

1,100명 강원전사들 달구벌 뜨겁게 달군다

전국체육대회 도선수단 결단식 제93회 대회 11일 개막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강원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필

승 의지를 다졌다.

도선수단은 5일 오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강원도체육회 부회장인 김상표 경제부지사 민병희 교육감 박상수 도의장 이인영 강원일보 전무이사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경기단체장과 선수, 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결단식 참가자들은 강원체육의 저력을 대구에서 펼쳐줄 것을 함께 기원했으며 김상표 부지사가 도선수단 총감독인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단기를 수여, 강원도의 자긍심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1일 대구광역시에서 개막, 17일까지 일주일

17일까지 일주일간 열전

도 종합순위 9위 목표

간 올해 첫 출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선수단이 출전한 가운데 시·도 대항으로 열린다. 개회식은 11일 오후 6시 대구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리며 '별들의 귀환', '대구의 컬러' 등을 주제로 식전식후 행사로 나눠 펼쳐진다.

1,100명의 선수와 230명의 임원 등 모두 1,340명의 선수단을 파견 강원도는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내 걸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선수들 모두 강원도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달라"며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발휘한다면 목표순위인 9위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도선수단 결단식이 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선수, 임원들이 상위 입상의 결의를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권태명기자

민병희 교육감은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멋진 승부를 통해 알찬 결실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며 "강원전사 모두 대구에서 런던을

림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달라"고 말했다. 결단식을 마친 도선수단 본진은 오는 9일 오전 9시 결전의 땅인 대구

로 장도에 오른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 이 기사는 강원일보TV(www.kwnews.co.kr)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춘천~서울고속도로 하도급 비율 낮다

하도급 업체 공사비 74.7% ... 도공 90%와 큰차이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 정부 시행보다 2배 비싸

춘천-서울고속도로 하도급 비율이 정부시행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정부 시행보다 2배에 달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단일 사업시행자가 하도급 건설업체에 지

급한 공사비 비율은 74%에 불과, 한국도로공사에 최근 5년간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인 90%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춘천-서울고속도로의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반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1995~2009년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1km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1km당 사업비인 208억원의 88.9%나 높은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모두 단일 사업시행자의 제안으로

건설돼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풀렸어도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3조9,022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251억원의 손실보전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타당성을 검토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추진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 하도급 관행 등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윤기자

동계오륜 시설 내년 하반기 착공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 시설공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장과 진입 도로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6년까지 모두 완공하고 2017년 프레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장은 중봉알파인 경기장과

경기장 8개·진입 도로 2016년까지 마무리 사업비 7706억... 2017년 프레올림픽 개최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 3개와 스피드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 5개 등 모두 8개 경기장이 신규 건설된다.

경기장은 선수·경기 중심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설에 역점을 두

고 시공된다.

특히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술성과 상징성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설계된다.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

법에 따라 국비 75% 이상, 지방비 25%로 마련되며 총 사업비 77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발주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 및 국제입찰로 진행된다.

진입도로 조성 공사에는 10개 노선에 총 사업비 4885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국비 70%와 지방비 30%

로 나눠 마련된다.

진입도로 공사 역시 2017년 프레올림픽을 대비해 2016년까지 모두 완료된다.

설계와 시공은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등 3개 개최도시가 참여하는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도가 추진한다.

신민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안정적인 국비 확보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 도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단장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결단식이 5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김상표 경제부지사, 박상수 도의회 의장, 민병희 교육감, 김찬영 강원도민일보 상무와 각급 기관단체장, 체육회 임원,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재용

“종합 순위 9위 반드시 성취”

전국체전 도 선수단 결단식... 본진 9일 출발



‘종합순위 9위를 향해 파이팅!’

오는 11일 개막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도선수단 결단식이 5일 오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결단식에는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200여명과 김상표 경제부지사, 박상수 도의회 의장, 민병희 도교육감과 임기준·임호순 도체육회 부회장, 권복희 이사를 비롯한 도체육회 이사진, 김찬영 강원도민

일보 상무 등 언론계, 박은주 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강원체육은 런던올림픽과 런던패럴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전국체전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강원인의 기개를 다시 한번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상수 의장은 “전국체전은 체

육종목을 통한 전국 각 시·도간 경쟁의 장으로 여러분들은 강원엘리트 체육의 대표하는 자부심을 갖고 고장의 명예를 빛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체전이라는 무대에서 즐겁게 당당하게 임해 기량을 맘껏 펼쳐 선전을 기대한다”며 “교육청에서도 강원체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덕래 도체육회 사무처장(단장)은 답사를 통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강원체육이 갖고 있는 저

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한 성적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참가한 도체육회 이사진들은 선수남여 대표와 종목별 임원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증정, 선전을 당부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도선수단 규모는 정식 42개 전 종목에 남녀 선수 1110명과 임원 230명 등 총 1340명으로 구성됐으며 17개 시·도가 겨루는 종합순위에서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수단은 개막일인 11일에 맞춰 종목별 개별 출발하며 본진은 오는 9일 출발한다. 유열